직지사, 사명대사 선양 사업 본격 추진

개산 1600년 맞아 문화대제전 개최

백일장대회 · 문학상 제정
금자대장경 연구 및 세미나
"사명대사 선향은 위상 확대"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직지사는 문화대제전으로 사명대사 선양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직지사 전경.

조선시대 신묵 대사는 참선을 하던 중 김천 직지사 천왕문 옆 은행나무에 황룡이 서려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 자리에 가니 한 소년이 잠을 자고 있었다. 천애고아였던 이 소년의 사연을 듣고 거두어 제자로 삼으니 이 소년이 바로 사명대사였다.

호국불교의 대표적인 인물인 사명대사를 배출한 직지사는 임진왜란 당시 천불전과 일주문 등을 제외한 40개 전각이 소실될 만큼 참사를 겪지만 조선 8대 가람의 위치에 오른다. 이는 사명대사란 고승의 상징성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이런 사명대사를 선양하는 사업이 김천 직지사 개산 1600주년을 맞아 본격 추진된다. 김천 직지사(주지 웅산)는 1월 12일 교구종회에서 사명대사 선양사업을 역점사업으로 펼치기로 결의했다.

사명대사는 임진왜란 이후 직지사를 300여 사암을 거느리는 조선 8대 가람으로 올렸다. 그동안 직지사는 교구차원의 헌양 사업이 필요함에도 이를 추진하지 못했다.

문화대제전 형식으로 열리는 이번 선양사업은 추모다례 및 백일장, 문학상 제정, 금자대장경 관련 연구 및 세미나, 시연회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문화대제전 관련 예산은 2억 여 원으로 구미 도리사의 아도화상 헌양재 등과 연계한 문화 축제로 펼쳐진다. 이번에 직지사가 추진하는 선양 사업은 한국불교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자대장경에 관한 연구와 시연 등이 그 것이다.

금자대장경은 930년(경순왕 4)에 금자대장경 593함(函)을 조성한 기록은 있으나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해인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고려대장경 판본에 앞서 직지사가 금자대장경을 소장하고 있었다는 기록으로 천묵 대사가 직지사 중창 후 '금자대장경'을 서사(書寫)하고 경순왕이 경명제자(經名題字)를 썼다다는 기록이다. 이는 고려대장경보다 590년 앞서 직지사에서 금글씨로 대장경을 펴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직지사는 이날 교구종회에서 재적승 장학금 지급, 군법당 지원, 신행단체 연합법회 봉행, 8교구 승려복지회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직지사 주지 웅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직지사의 위상을 높인 사명대사에 대한 선양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문화대제전을 통해 직지사의 역사와 문화를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웅산 스님은 "직지사 본말사가 수행가풍을 바로 세우고 본말사 사찰들이 지역포교에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The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다 ②

능인 스님 충남대 병원 영적돌봄가

"겸손해지고 '나' 바라보게 돼… 수행자 많이 참여해야"



2014년 충남대병원 임상병원에서 능인 스님은 영적돌봄가 활동을 시작했다. '호스피스공부를 해야 겠다'고 마음을 먹은 적은 없었지만 호스피스는 자연스럽게 스님의 삶 속으로 들어왔다. 스님은 화가 날 때 화나는 마음을 극복하고, 다스리고 싶었다고 한다. 그렇게 심리공부를 하게 됐고, 그것이 임상병원까지 이어졌다.

"2014년 임상병동에 있을 당시 한 환자분이 마지막까지 화를 내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참 많은 생각이 들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화를 내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음 앞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참 많았습니다. 동시에 부처님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궁금했어요. 그렇게 정식으로 호스피스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현재 충남대 병원에서 영적돌봄가로 활동 중인 스님은 죽어가는 사람의 힘든 여정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가장 힘들었지만 이 또한 호스피스 활동을 하고 각기 다른 삶을 만나면서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여러 사람들의 임종을 바라보며 스스로 겸손해지고, '나'를 바라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스님도 아직 평정심 유지는 힘들다고 한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닮은 분을 보거나, 화를 버럭 내는 환자를 만나면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계속 노력하며 극복하고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호스피스 일을 하며 큰 보람을 느낀 일도 있었습니다. 환자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노보살님이였습니다. 상담 전 실행한 질문지에서 그 보살님은 자신이 가장 미안하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남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보살님의 남편은 엉엉 울면서 보살님과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찾아오지 않던 남편분은 그 상담 이후로 마지막 임종까지 지키셨습니다."

스님은 호스피스가 '잘 죽기위한 곳'이나 '특별한 사람만 가는 곳'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호스피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없다며 호스피스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스님은 "수행자들은 수행하고 공부하며 배운 것을 실천해야 인생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다"며 참여를 독려했다.

박진형 기자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는?

말기질환 환자 및 가족들의 생명존엄성을 높이기 위한 불교 호스피스 단체로서 2009년 창립됐다. 각 지역 · 지부 불교호스피스 활동을 총괄하며 조계종 승려연수 일환으로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1기를 모집 중이다.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1기'

승려연수 30점 인증

①임상과 수행의 만남 ②환자의 심리와 욕구 ③영적 대화기법 ④죽음 현상들에 대한 직관 ⑤임종간호와 영적돌봄의 실제 ⑥불교의 생사관과 정토신앙 ⑦불교적 임종의식과 입관의식 ⑧임종시점에서 西歸直指의 방법론

- **교육기간** | 2018년 3월 27일(화) ~ 3월 29일(목)
- **접수마감** | 3월 19일(월) (선착순 30명)
- **교 육 비** | 25만원(법납 10년 미만 및 학인스님 5만원 감면)
- **접수문의** | 052)255-8522, 8524, 8530 / www.kbha.kr

명상전문지도사 첫 자격시험 열린다

지도자協, 27일 탄허기념관

실력 있는 명상전문지도사를 양성 · 배출하기 위한 자격시험이 처음으로 열린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이사장 혜거)는 1월 27일 오후 2시 탄허기념박물관서 '제1회 명상전문지도사 자격시험'을 개최한다.

이번 자격시험은 협회주관교육과정(명상아카데미 강좌 70시간)과 단체 교육과정 100시간을 수료한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참선불교', '명상상담', '초기불교', '통찰치유', '통합' 과목의 검정이 진행된다. 명상전문지도사 자격시험은 한국명상지도자협회 홈페이지(www.kamto.net)에서 접수 가능하다.

한편, 한국명상지도자협회는 시대가 요구하는 명상의 실천체계를 새롭게 확립하기 위해 2016년 출범했으며, 참선 · 명상상담 · 위빠사나 호흡관찰법 · 자비명상 · 하트스마일명상 · 가피명상 · MBSR 등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문의 (02)953-5307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자비실천으로 지구촌을 따뜻하게"

파라미타, 印서 제17차 국제교류협력활동 진행

18~30일 아쌈 주 소나리 마을 1,500여 명에 의료 및 생활지원



인천공항에서 18일 출국전 봉사단이 자비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심산)는 '자비와 나눔의 실천으로 지구촌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제17차 국제교류협력활동을 1월 18일부터 30일까지 인도 아쌈 주 소나리 불교마을 일대에서 진행한다. 이번 국제교류협력활동에는 지도법사에 본회 이사이자 불교중앙박물관장인 오심 스님, 단장에 본회 상임이사인 성진 스님이 참여하며 동국대 의료진을 비롯해 중고등학생 34명이 참여한다.

인도 아쌈 주 소나리 마을은 인도 북동부에 위치하고 가장 가난한 지역에 해당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힘겹게 지켜온 불교마을이다.

노덕현 기자

국제포교사회, 제11회 영어 자타카 암송대회

19개 팀 치열한 경연, 대상에 이현정 · 정성이

아이들이 부처님 전생담 〈자타카〉를 영어로 암송하는 새싹 포교의 장이 열렸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과 국제포교사회(회장 박홍우)는 1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제11회 어린이 영문 자타카 암송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19팀이 참여했으며 200여 대중이 운집해 뜨거운 응원전을 펼쳤다. 행사를 주관한 박홍우 국제포교사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참가한 어린이들이 불심을 증장하고, 국제화 시대 필요한 영어실력도 좀 더 쌓길 바란다"며 "경험을 통해 학창생활을 보람되게 하고 현명하게 사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학년부에서는 진관사에서 온 이현정 어린이, 고학년부에서는 서울 국제선센터에서 온 정성이 어린이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노덕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8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 집
● 초 6년 ~ 고 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8년 2월 28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 (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 (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